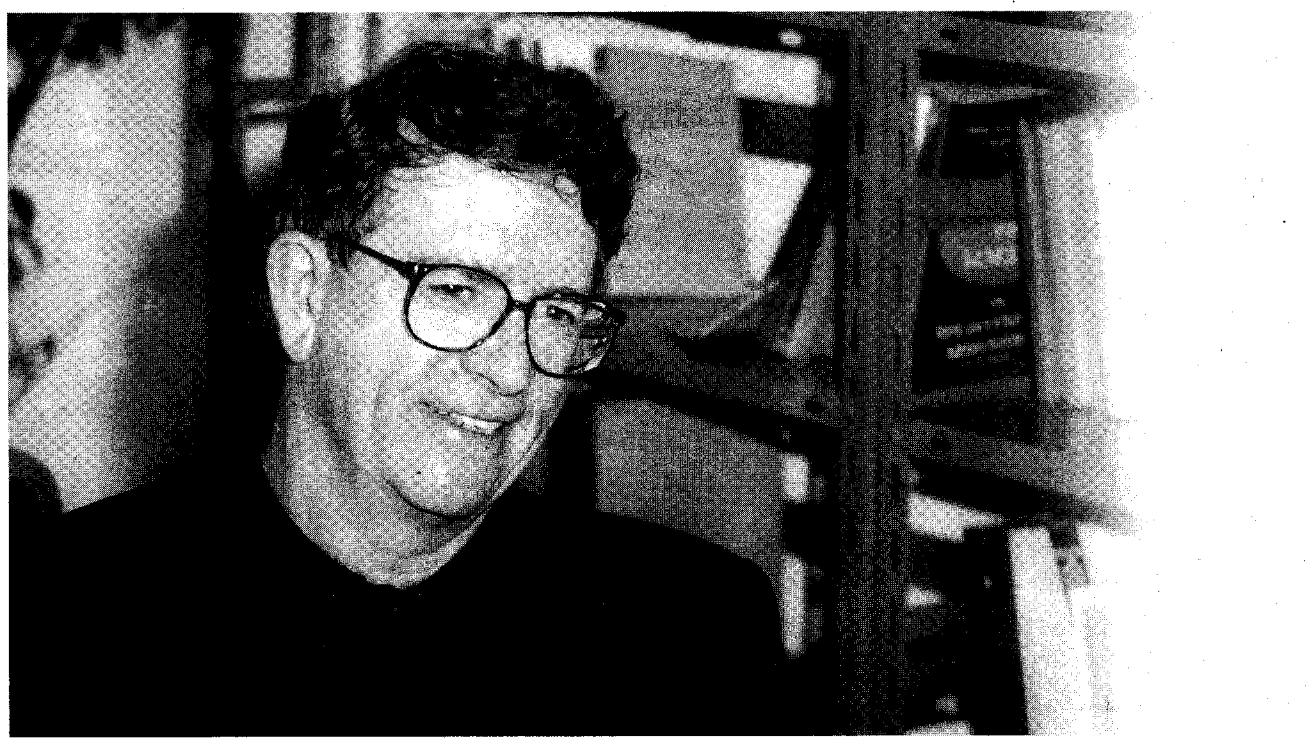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아일랜드인

케빈 오록
〈 영어영문학과 교수 〉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뽑은 쪽지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경력

1977년 경희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조교수로 임용
1981년 동대학 부교수로 임용
1986년 동대학 정교수로 임용
1986년 동서 문학상 수상
1989년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1996년 코넬 대학 문학상 수상
천주교 성 콜롬반 외방 선교회 신부

그의 방을 상상해 보았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34년째라는 외국인 신부. 지구를 반바퀴쯤 돌고 낮과 밤을 한 번 바꾸면 도착하는 나라 아일랜드가 고향이라는 그 삶의 궤적은 그가 한국인과 아일랜드인의 어디쯤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 본 그의 연구실은 그가 한국인이라거나 외국인이라는 느낌과는 별 상관없이 그저 검소하고 소박했다.

낡은 소파와 구식 캐비넷, 검소한 책장과 책상은 십년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였을 것 같았다. 탁자위에 놓인 커피포트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쓰던 것과 같은 디자인인 것을 보고 '무엇이든 아껴쓰고 절약하며 사시나봐요?' 라고 물었더니 허허 웃으며 "아뇨. 아낀다기보다는 뭐든 사서 바꾸는 것이 귀찮아서요". 라고 답했다. 그러고 보니 아무렇게나 빗어 넘긴 머리하며 편해 보이는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신부라고 해서 신부복을 입은 근엄한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의외다.

"흔히 신부라고 하면 목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부들도 있지요. 저는 목회활동대신 평생 공부를 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신부예요."

오록 교수가 속한 성 콜롬반 외방선교회는 동양에서 선교활동을 할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단체다.

열일곱살 때 선교회에 입학한 그는 7년동안 선교사 교육을 받았고 스물네살이 되던 해 한국에 왔다. 근무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교회가 명령했기 때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뽑은 쪽지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34년동안 맺어온 인연을 생각한다면 좀 심심한 이유다. 그렇게 건너온 남의 땅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무척 좋았지요. 처음 몇년 동안 강원도에 살았는데 전 동해 바다를 좋아했어요. 짙고 푸른 바닷물은 가까이서 봐도 너무 맑았거든요."

지금 천만 명이 모여 산다는 서울 땅에 고작 삼백만 명이 오순도순 살 때 얘기다. 그 시절을 그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여유로울 수 있었던 때'라고 회상한다.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향수에 빠져드는 것이 이제 조금 짜증스레 느껴질 만큼 우리의 일상이 버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30여 년을 묵묵히 살아온 그를 보니 '여유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현대 문학작품에서부터 이규보나 최치원, 김수장의 고시조까지 많은 우리 문학작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오록 교수는 시도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웬 '시'얘기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문과에서 그가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영시'이다.

그가 보기에 우리 나라 학생들은 시를 느끼지 않고 계산하려고 든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문학이 아니라 문학에 대해 공부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느끼기도 전에 사실주의니 낭만주의니 표현주의니 해서 나누기를 즐긴다는 뜻이다.

feeling이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건만 시를 두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를 안타깝게 한다. 물론 마음으로만 느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오록 교수는 제자들이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배움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나갈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록 교수 자신에게 있어 일생을 함께 해온 배움의 테마는 번역문학이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문학을 번역해 외국에 알리는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최인훈의 '광장'이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현대 문학작품들에서부터 이규보나 최치원, 김수장의 고시조들까지 많은 우리 문학작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현대작품은 그렇다 쳐도 고시조나 고대작품을 번역하는 작업은 예사롭지 않을텐데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끝에 기쁨이 온다'는 말로 대신했다.

지난 봄에는 인터넷에 한국 문학관련 사이트를 개설(http://korea.insite.co.kr)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신라의 향가와 고려가요, 시조, 가사, 한시와 20세기 현대시까지 모두 한데 묶은 두꺼운 시선집을 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의 의의를 단지 해외에서 한국문학의 수준을 인정받는 데서만 찾지는 말자고 당부한다.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멋지지 않느냐고.

그제서야 예순을 바라보는 이 아일랜드인이 전 생애를 걸쳐 내딛어온 걸음걸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섬나라 사람이라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사람들도 반도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런 성향들이 강하죠.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고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내 조국 아일랜드는 한때 영국의 식민지여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반영의식으로 가득 찼었지요.

이제 유럽은 하나가 되었고 아일랜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보다 유럽의 한 국가로서 전체 유럽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학생들이 열린 사고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한국이 세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겠지요."

〈 최수정 기자 〉

운동처방실 개설 안내

체육과학연구소에서는 경희가족들의 체력진단을 통해 연령대별 체력수준과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드리는 운동처방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처방실에서는 건강, 체력 및 과학적인 운동방법 제시를 위해

- 사전설문조사
- 체력검사
-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하고 종합평가하여 각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체력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운동프로그램과 운동방법 등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검진시간
   월~금요일 : 오전 9:00~오후 5:00
   토 요 일 : 오전 9:00~오후 1:00
2. 예약안내
   직접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사전예약해 주십시오.
   예약문의 : 02)961-9176
3. 장소 : 체육대학관 5층 운동처방실
4. 이용금액
   1회 : 6,000원 2회 : 10,000원
5. 검진내용

구분	항목	내용
설문조사	운동, 식생활, 스트레스, 생활습관, 과거병력, 및 자각증상, 가족병력 등	
체력측정	형태	신장, 체지방, 비만도
	순환기	혈압, 맥박
	폐기능	폐활량
	근력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유연성	윗몸 앞으로 굽히기
	순발력	제자리 높이뛰기
	평형성	눈감고 외발서기
	민첩성	전신반응
운동부하검사	심폐지구력	에어로 바이크

한국체육과학연구소

'98 1학기 C.R.S. 인증시험 시행공고

1. 응시분야(시험내용)
가. 영어분야 : 듣기, 쓰기 및 읽기위주의 선택형 문장
나. 전산분야 : 전산학이론 및 컴퓨터응용실습

2. 응시자격 : '98학년도 1학기 C.R.S.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합당하여야 합니다.
가. 1997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
단,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복학, 재입학, 일반(학사) 편입학 등의 사유로 2001년 2월 1일 이후 졸업하는 경우 C.R.S.를 적용합니다.
나. '98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필하고 시험당일 현재 재학중인 자
다. 위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도 위 '나'항의 요건에 합당하면 응시를 할 수 있으며 합격할 경우 성적부에 C.R.S. 합격(P) 표기를 합니다.

3. 이수방법 : 아래 각 호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단, 입시특기자는 제외함)
가. 학교가 지정한 C.R.S. 지정과목(외국어분야 3학점 이상, 전산분야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나.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다. 학교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4. 시험일정
가. 원서배부 및 접수기간 : 1998. 4. 20(월)~ 4. 24(금)
나. 원서배부 및 접수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무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1부
라. 시험일시 : 1998. 5. 9(토)
영어분야 : 10:00~11:40(100분간)
전산분야 : 13:00~14:40(100분간)

5. 시험장소: 1998. 5. 4(월) 대학주보, 단과대학 교무실 및 학부(과) 사무실에 공고합니다.

수원캠퍼스 교무처

알림

개교 50주년기념 앰블렘 및 표어 현상공모

지난 날의 경희역사에 관심을 쏟는 까닭은
다가올 경희 앞날의 희망찬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한층 더 바람직한 경희의 미래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앰블렘 및 표어는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대학주보가 후원합니다.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학교발전의 의지를
가득 담아 응모하여 주십시오.

현상공모안내

	앰블렘	표어
응모대상	본교(대학원포함)학생, 동문, 교직원 등 경희가족 모두	
작품내용	경희 50년 역사를 함축하고 미래 경희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원색 상징 도안	1.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 2. 21세기(또는 개교100주년)를 향한 경희발전의 의지를 담은 내용 3.경희인의 화합과 단결을 함축한 내용
작품형식	A4 Size의 화판에 4원색 이내로 직접 도안 또는 컴퓨터 그래픽 출력물로 제출	A4 용지에 20자 이내로 제출 (표어에 대한 별도 설명 첨부)
제출기한	1998.5.1(금) 17:00까지 •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할 수 있음	
시상내용	당선작(1작품)-100만원 가작(2작품)- 각 30만원	당선작(1작품) -50만원 가작(2작품) -각 20만원
제출처	개교 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961-0931~2 대학주보사 (서울)961-0093 ~4, (수원)201-2056,2860	
발표 및 시상식	1998.5월중 대학주보에 발표, 시상식은 발표시 공고함 (응모작품수는 제한 없으며, 응모작에 대한 판권은 경희대학교에 귀속됨)	

대학주보사

'99년도 ROTC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본교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
   (1974. 3. 1~1981. 2. 28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98. 3. 30 ~ 5. 2(학군단)
   나. 구비서류(문의바람)
4. 선발절차
   입학점수,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98. 11. 20
6. 특전
   가. 무시험 선발
   나. 소위임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가능
   다. 의무복무기간 2년4개월(장교중 최단기)
   라.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 분류 보직활용
   마. 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학군단 행정실 961-0085/0087
   수원캠퍼스 학군단 행정실 0331-201-2027 ~ 8

'98년도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1학년(00명), 2학년(00명)
2. 지원자격
   가. 1학년 ('76. 1. 1 ~ '82. 1. 1 출생자)
   나. 2학년 ('75. 1. 1 ~ '81. 1. 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98. 3. 16 ~ 4. 30
4. 선발절차
   가. 1차 :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나. 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발표 : '98. 8. 10
6. 특전
   가. 학군후보생 지원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
   나.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다.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 분류 보직활용
   라.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우대 선발 및 처우)
7. 문의처
   서울 캠퍼스 학군단 행정실 : 961-0085/0087
   수원 캠퍼스 학군단 행정실 : 0331-201-2027 ~ 8

학생군사교육단

'98 한국과학재단 연구지원사업 설명회

연구처에서는 한국과학재단 '98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연구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계 분야 교수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998년 4월 15일(수) 14:00
- 장 소 : 본관 2층 대회의실
- 초청연사 : 한국과학재단 연구지원 총괄관리팀장
- 참석대상교수 : 1. 문리과학대학 이학부
  2. 정경대학 경영학과
  3. 가정대학 4. 의과대학
  5. 한의과대학 6. 치과대학
  7. 약학대학

서울캠퍼스 연구처

校史 자료수집

1949년에 창학한 경희학원은 1999년이면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는 문화세계를 창조할 이상을 품고 걸어온 경희 반세기의 자취를 모으고자 합니다.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경희 공동체를 재확인 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대상자료
학교사(學校史)전반에 관한 자료 (사진, 간행물, 문서, 유품, 기념품, 집기, 바클, 뱃지, 교복, 교모, 페넌트 등)
◈ 연락처 :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중앙 박물관
◈ 전 화 : 961-0141(사무실) 0098(연구실)
FAX : 961-0140

중앙박물관